

<2012년 9월 19일 수요일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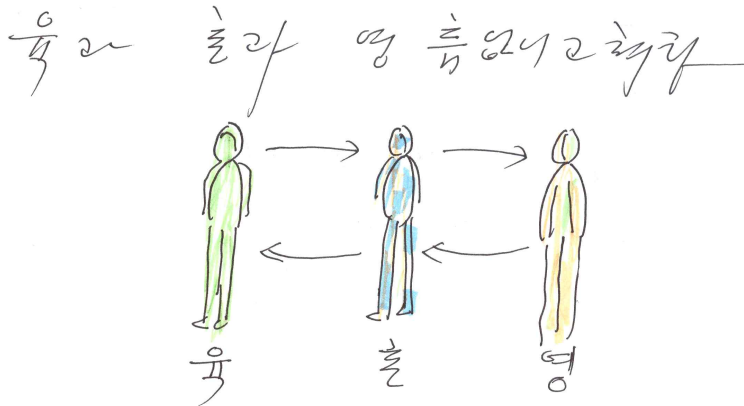
육과 혼과 영을 흠 없이 고쳐라

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

요한계시록 3장 16-22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화면을 보면서 오늘 주일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외쳐 보겠습니다.) <영상1> 육과 혼과 영을 흠 없이 고쳐라.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환경’을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개발하고 고치고 만들고 변화시킬수록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지고 신비해져서 기뻐하며 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고치고 만들수록, 성삼위를 사랑할수록 그 육과 혼과 영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변화되어 기뻐하며 얻을 것을 얻고 영원까지 쓰게 됩니다. 놀지 말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상2 끝>

천국은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침노하여 힘써서 가는 곳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힘써서 뺏는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마치 시험을 보듯이 실패할 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모순을 고칠수록 자기가 빛나고, 그 영은 천국에 속한 영이 되고, 지상에서 육이 그만큼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도 확실히 깨닫고 행하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같이 행함으로 성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즐기고 얻기를 축원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사람이 눈과 귀와 입이 불구이면, (손으로 눈, 귀, 입 만진다)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마음·정신·생각이 불구이면 온전하게 고칠 때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모순은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것을 고쳐야만 눈을 뜬 자와 같이, 귀로 알아듣는 자와 같이, 입으로 말하는 자와 같이 그제야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모든 것의 혜택을 받고, 얻을 것을 얻고, 기뻐하고 즐기며 살게 됩니다. <영상3 끝>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모순된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고치면 고칠수록 육으로도 얻고, 영으로도 얻고, 육과 영이 변화되고, 결국 영은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얻을 것을 얻게 됩니다. 고로 고치는 것과 안 고치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한 손을 하늘로 높이 뻗으면서 천국, 그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지옥)

불구의 마음, 불구의 정신, 불구의 생각, 불구의 혼을 안 고치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자기 영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 한 손을 하늘로 높이 뻗고, 완전히 고칠 때까지 자기 영이 천국에 못 간다 :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지적한다) 가령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를 완전히 만들 때까지는 못 타고 다니는 격과 같습니다. ‘자기 고치기’, ‘자기 완성시키기’ 삶입니다. 아멘.

선생과 같이 한마을, 한집, 한 역사에 살았어도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 흠과 모순을 고치지 못한 자들은 보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을 따라 고친 자들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친 자와 고치지 못한 자의 인생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자기 마음·정신·생각·행실·혼·영의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말씀을 줘도 흡수하지 못하고 소경처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직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모순을 못 고치니, 그들을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왜 예수 믿는 자가 저 모양이냐?”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오직 성자 주님께서 ‘그 시대 분체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제일주의로 살아야 자기 모순이 고쳐지고 변화됩니다. (성

자 본체에서는 엄지 들고, 성자 본체에서는 검지를 든다)

성자를 제대로 알려면 성자가 보내신 분체의 사명과 그의 행함을 제대로 알고 따르며 같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모순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여야 자기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의 모순과 병이 고쳐지고 육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온전히 만들고 변화시켜 자기 영을 천국에 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그대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어도 그대로 쓸 것도 있지만, 집이나 물건이나 환경을 다시 재창조해야 귀히 쓰게 됩니다. ‘인간’도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삼위로 인하여 자기 마음·정신·생각·행실·혼·영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아담 때부터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들기 위해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닮고 그 마음을 닮아 성삼위와 일체 되어 사랑하도록 ‘말씀’으로 ‘생활’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랑의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이 깨졌습니다. <영상4 끝>

4000년 동안 복직하고, 때가 되어 신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신약 2000년 동안 아들의 말씀을 전하시며 인간의 육과 영을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신약 2000년 역사가 지나고 이제 때가 되어 성약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는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그 분체인 사명자를 통해 ‘사랑의 말씀, 신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들을 신부로 대하시며, 그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육도 땅에서 휴거되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그에 따라 영도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자 본체의 영 재림 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 영을 신부로 삼고 하늘로 휴거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성자께서 그의 분체를 통해 ‘시대 신부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땅에서 휴거시켜 구원받고 살게 하시며,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온전히 고쳐서 육과 혼과 영을 흠 없게 하고 계십니다. 그로 성자 본체의 재림의 날에 영이 하늘로 휴거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본체의 재림은 지금 1차 땅에서 진행 중입니다. 육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영을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어도 영적인 소경들은 모르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불구자라서 모릅니다. 항상 기다린 역사의 시대가 왔어도 맞은 자들만 알고서 하늘이 보낸

자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펴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세상에서도 주인공과 결혼하여 같이 사는 자만 압니다. 어느 지역도 그 지역에 가는 자만 압니다. 예수님 때도 소수만 알고 믿고 따르며, 따른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불신, 배신, 외면, 무관심으로 살아
갔습니다. 그들의 영은 지금도 영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으로 각각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가르침
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예
수님 때보다 차원만 높지, 똑같이 아는 자들만 믿고 따라가며 구원을 이
루고 있습니다. <영상5 끝>

이제부터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상6>

<성자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 곧 절대적 존재자인 성삼위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 삼위는 그 목적을 땅에 실행한다.

사람이 세상의 것들도 배워야 알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서도 배워야 알고 하늘의 것도 배워야 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락하지 않았다면, 더 일찍부터 높은 차원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수준 낮게 살아왔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 중요 영상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삼위의 창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구원섭리를 펴며 역사해 온 터전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본래 이루려면 ‘최고 높은 차원의 창조 목적’을 실행하고 있다. 그 뜻은 나 성자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급>으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데리고 사랑의 뜻을 펴던 <구약시대>가 지났다. 그 터전 위에 역사가 성장하여 나 성자가 10대 같은 자를 데리고 사랑의 뜻을 펴 온 <신약시대>도 지났다. 그 터전 위에 역사가 더욱 성장하여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듯이 성장되었다.

나 성자는 신랑으로 지상의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다시 와서 땅에서 <성약역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나의 육을 통해서 시대 말씀 나팔을 불면서 너희 육신들을 땅에서 휴거시키는 <성약 육적 휴거 역사>를 펴 왔다.

이제 <영적 휴거 역사>를 앞두고 있다. 나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의 날이 되면, 너희 육을 통해 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너희 영이 나와 함께 하늘로 휴거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땅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부 측인 땅에서 ‘육’으로 신부 집 혼인 잔치는 했으니, 이제 신랑 측인 하늘에서 ‘영’으로 신랑 집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신부 집 혼인 잔치>는 너희 육을 땅에서 휴거시켜서 하고, <신랑 집 혼인 잔치>는 너희 영을 하늘로 휴거시켜서 천국에서 한다. <영상7 끝>

지금은 너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라서 너희 마음·정신·생각·행실·혼을 온전하게 고쳐서 그로 인하여 영을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다. 마치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될 여자에게 타이르듯 말하는 것과 같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둘만 사랑하며 지내니 (손가락으로 두 사람

표시) 신부에게 모순이 있어도 남자가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 주며 살지만, 결혼하면 형제들과 같이 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기에 (열 손가락이나 다섯 손가락을 다 펴고 손바닥을 청중들이 보이게 앞으로 든다) 모난 성격과 모순을 안 고치면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 고로 결혼하기 전에 모순을 안 고치면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이다 <영상8 끝>

지금은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며 육으로 살고 있다. 고로 나 성자도 내 분체도 너희 허물과 모순을 덮어 주며 고치라고 애타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고, 천군 천사들과 못 영들이 옆에서 같이 살면서 모두 보고 대한다. 그때는 너희 허물과 모순이 불구의 지체같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천국은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각종 모순과 부족한 것을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

허물과 모순이 있는 자는 마치 손이나 발이나 어떤 지체가 없는 불구자 같거나, 지체가 있어도 기능을 못 하는 불구자와 같다. 고로 불구자를 신부로 삼고 천국까지 데려왔다고 하며 나 성자를 우습게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자기 허물과 모순을 고치지 않은 자의 영은 아예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다.

지금 땅에서 나 성자와 나의 분체가 희망을 가지고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사랑에 불붙어 말씀을 전해 주고 도와주고 함께할 때 어서 행하여라! 말씀을 듣고 너희 모순을 고치라. 너희 육과 혼과 영을 흠 없이 하여라. 때가 지나면 이글이글 타는 태양도 한풀 꺾여 더위가 수그러지듯이, 자기 때가 지나면 나 성자와 내 분체가 대하는 것이 너희 전성기 때와는 다르다.

연애 때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애인으로 만들려고 여자에게 허물과 모순이 있어도 덮어 주며 (왼손 주먹 쥐고 있으면, 오른손이 손바닥을 펴서 주먹 전 왼손을 덮어 준다) 뜨거운 사랑으로 대한다.

그러나 여자가 끝내 자기 모순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대

하는 남자를 별것 아니게 대하면,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남자는 그 여자를 멀리하고 다른 여자를 찾는다. (손가락으로 단상 옆, 사람 없는 곳을 가리킨다) 나 성자도 내 분체도 그리한다. 때를 놓치면 영웅 열사라도 행하기 어렵다. 나 성자가 지금 말할 때가 최고 기회다. (엄지로 최고 표시)

2012년 12월 초는 그동안 너희들이 실력껏 시험 친 시험지를 거둬 버리는 때다. 그때는 너희가 행한 것을 채점한다. 이는 비유가 아닌 실제다. 이제 두 달 남았다. 어서 답을 쓰듯이 고쳐라. 답을 아니 쓰기만 하면 되듯이, 자기 모순을 자기가 아니 어서 고치면 된다. 자기 모순을 고쳐야 차원을 높인다.

‘사랑’은 근본이다. 사랑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한다. (다섯 손가락 합치면서 이것저것을 가리킨다) 나 성자를 사랑함으로 나 성자 앞에서 행해 보아라. 나 성자는 너희를 희망으로 쳐다본다. 고로 최고의 말씀을 주고 기대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영원히 같이 살려고 내 분체와 함께 심정 태우며 너희를 신부로 키우고 있다. 너희를 신부로 키우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너희가 나의 신부로 변화되면, 그 기쁨이 온 우주를 꽉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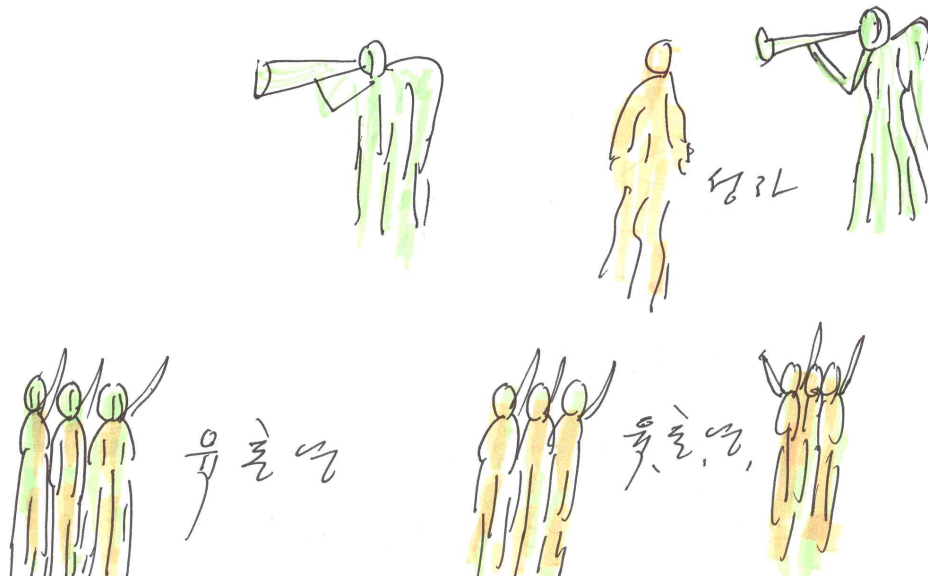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매일 혼자 하려 하지 말아라. 나 성자가 너희의 신랑이며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만드는 자이니 나 성자에게 기도하고, 전능자에게 알리고, 나의 분체와 의논하고 간구하며 그와 일체 되어 같이 고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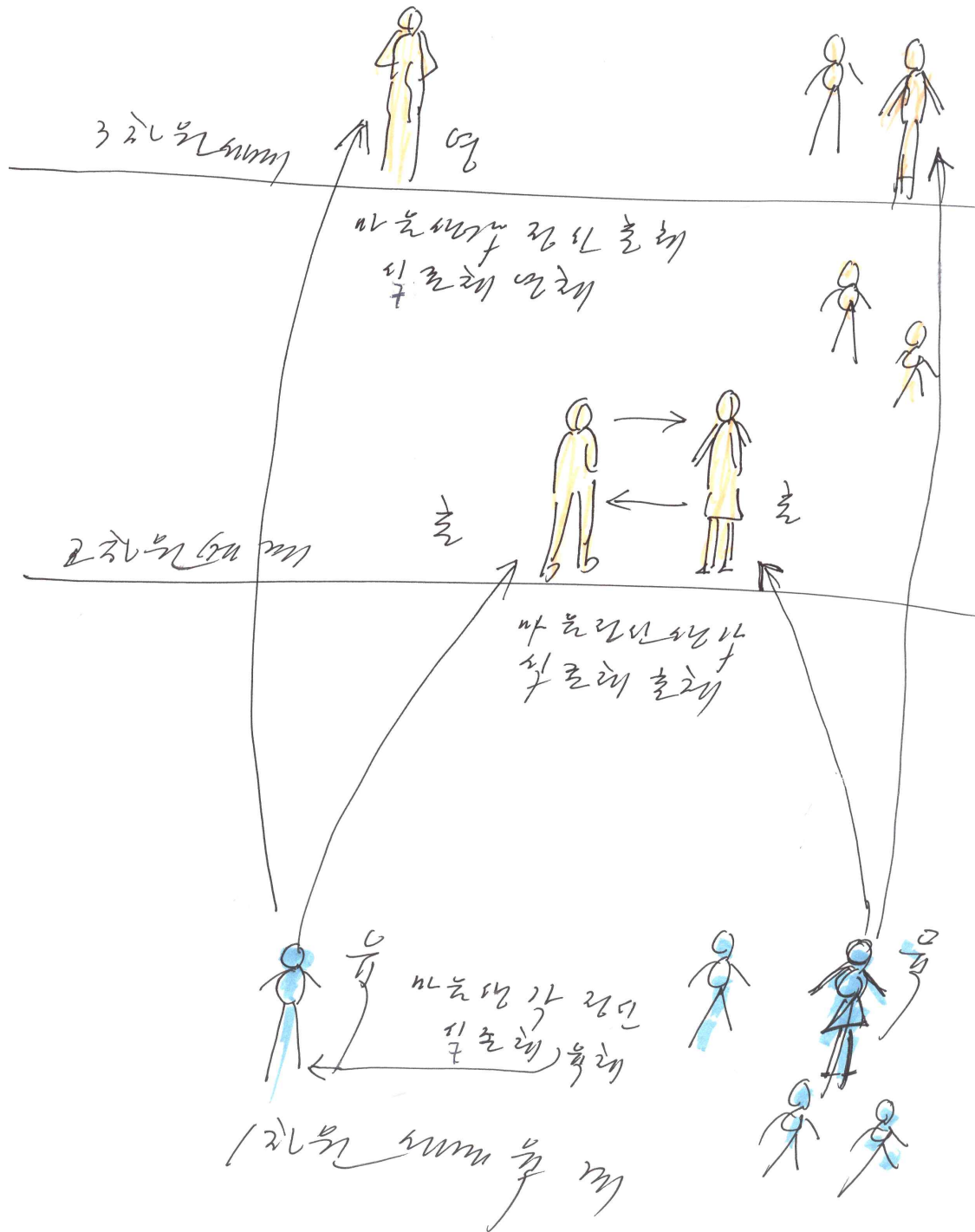


나 성자가 본체의 영으로 재림할 때 너희 육도 혼도 영도 흠 없게 모

순 없게 완전히 예비하여 맞으라고, 이 시대 나의 분체를 통해 <혼적 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육체가 육성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육적 세계>는 1차원 세계이고,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행하는 <혼적 세계>는 2차원 세계이고, 영체가 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영적 세계>는 3차원 세계다. 너희 마음·정신·생각을 ‘혼체’로 보고, <혼적 세계>까지는 올라와서 너희 마음·정신·생각·행실의 모순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고쳐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영상9 끝>



나 성자의 영원한 신부가 되도록 각자 책임분담을 다 하여 모순을 고치고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너희 육과 혼과 영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라고 말한 사랑의 성자니라. **살롬!** (손을 펴서 흔든다)